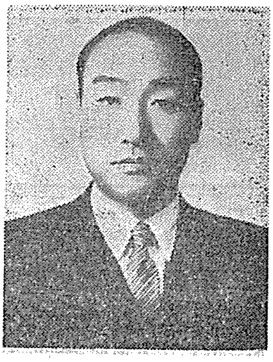

離 任 辭

大韓齒科醫師協會

前會長 徐 永 圭

大韓齒科醫師協會 會長이라는 重責의 자리를 떠나며 會員여러분에게 離任辭를 드립니다.

本人이 協會理事로 就任하여 協會副會長, 서울市會長, 協會長등을 歷任하며 일하던 約20年이라는 歲月동안 齒科界는 많이 變模되었으며 波瀾도 많았읍니다.

그동안 齒科界 紛糾, 第5回 亞細亞太平洋齒科聯盟會議開催, 東京齒科醫師會와의 자매결연, 齒協會館 建立, 協會誌 月刊發行實現等等 複雜하고 어려웠던 일들, 또한 國際會議에 參席하여 韓國齒科界의 紹介및 地位向上, 齒務課復活等이 눈앞에 走馬燈처럼 스쳐갑니다. 그동안 이러한 일들을 같이 해나간 여러 任員및委員 여러분께 또다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니 過去의 齒科界와 現在의 齒科界가 對照的으로 나타납니다.

現在 우리 齒科界는 어느 時點에 서 있을까요

우선 敎育部門을 볼때 齒科醫師의 輩出을 爲하여 수고하시는 三個齒科大學敎授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이機關에서 輩出되는 後輩들의 資質向上이 期待에 어긋나지 않음으로 우선 마음든든하며 現在 各級 齒科醫師會 任員여러분들이 齒科界의 여러가지 어려운 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여 國內外的으로 맹렬히 活動하고 있는 그誠意와 熱意는 能히 解決하고 남을 迫力을 지니고 있는것을 볼때 참으로 마음든든하며 將次 齒科界는 飛躍的으로 發展할것을 確信합니다.

그러나 當面한 難問題는 山積되어 있음으로 이를 解決하기 爲하여서는 全會員이 協力하여 各者의 環境과 個性을 社會의 各界各層의 反響시키도록 團結로서 齒科界의 여러가지 目的을 達成하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現在 協會나 齒科界가 하여야할 問題는 許多합니다. 醫療保險制度推進, 稅務對策, 酬價規定原價計算, 機關紙 週間紙로의 發展, 齒科補助看護員敎育및 資格賦與, 齒科機材分析機關設立및 國産化推進에 施行할 低價金屬開發問題, 醫療保險을 前題로한 地方齒大新設問題, 低所得國民등 모든問題가 會員의 團結과 協助가 必要합니다. 더우 緊迫한 問題는 齒科醫院의 零細化防止를 時急하게 解決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가 將次 數年內에 解決될것이 確實한 것은 齒科醫學徒들의 質的向上과 齒科界의 協同精神이 現在와같이 持續되고 있음으로 齒科界의 밝은 展望은 數年內에 올것을 確信합니다.

또하나 우리 齒科界를 發展시키는 要因의 하나는 國民所得의 增進을 中進國以上의 國民所得이 됨으로써 解決될 것입니다. 現在 우리나라의 齒科患者는 國民의 一部만이 診療를 받고 있는 實情으로서 全國民이 齒科醫院을 찾을수 있는 時期는 오직 醫療保險實施만이 解決될 수 있는 것이니만치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各者研究 協力하여야 할것입니다.

會員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付託드리고 이자리를 떠나겠읍니다.

協會는 恒時會員을 爲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것인가를 念頭에 두고 齒科界의 動向 會員의 實態를 把握하여 齒科界의 어려운 問題를 解決하고 會員의 權益 옹호와 親睦과 齒科界發展에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를 迅速히 解決할수 있는 일은 會員여러분의 物心兩面的 協助와 助言과 參與意識이 없이는 絕對로 數名의 任員의 힘으로는 이루어질수 없읍니다.

本人이 이자리를 떠나며 會員여러분께 再三付託드리고 싶은 것은 오직 會員間의 親睦과 會에 對한 參與및 協助만이 우리 齒科界 또는 會員自身의 發展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團結과 協助만을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會員 여러분 家庭에 繼續 幸運이 깃들기를 祈願합니다.